

끊임없이 사랑을 하면서 동시에 위대한 기부자도 되어라,

그러면 너희들이 장애의 파괴자이며 해결책의 화신이 될 것이다.

오늘 사랑의 대양이 신에게 사랑 받을 가치 있는 그의 자녀들을 만나려고 왔다. 너희들 역시 모두 사랑이라는 미묘한 비행기를 타고 여기에 오지 않았느냐? 너희들은 보통 비행기를 타고 여기까지 날아왔느냐 아니면 사랑의 비행기를 타고 왔느냐? 사랑의 물결이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서 나오고 있으며, 오직 사랑만이 이 브라민 생의 기반이다. 너희 모두가 여기에 왔을 때, 너희를 잡아당긴 것은 사랑이었다, 그렇지 않느냐? 너희들이 지식은 나중에 들었지만, 너희가 신을 사랑하게 만든 것은 사랑이었다. 너희들은 자기가 신의 사랑을 받을 만큼 가치 있게 될 것이라고는, 결코 꿈조차 꾸지 못했다. 그러면 지금 너희는 뭐라고 말할 것이냐? 너희들이 그렇게 되었다고 한다. 이 사랑은 평범한 사랑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난 사랑이다. 그것은 영혼의식의 사랑이며 참된 사랑, 이타적인 사랑이다. 신에게서 오는 이 사랑은 너희가 기억을 아주 쉽게 경험하게 해준다. 너희들이 사랑하는 이는 잊기가 어렵다. 너희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잊는 것은 어렵지만, 그 사람을 기억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사랑은 미묘한 자석이다. 사랑은 너희를 쉬운 요기로 만든다. 그것은 애써야 하는 데서 너희를 해방시킨다. 사랑으로 어떤 이를 기억하는 것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다. 그 다음에 너희는 사랑의 열매를 먹는다. 너희 자녀들이 모든 곳에서 온 것은 사랑의 징표이며, 2중의 외국인들은 사랑으로 여기까지 달려왔다. 자녀들이 어떻게 90개국에서 여기로 달려왔는지 보아라. 이 나라의 자녀들도 신에게 사랑 받을 가치가 있지만, 오늘은 2중의 외국인 자녀들이 황금의 찬스를 가졌다. 너희들 역시 모두 특별한 사랑을 갖는다, 그렇지 않았느냐? 너희들은 사랑을 가졌겠지? 너희들은 참으로 많은 사랑을 가졌다! 얼마나 많은 사랑이냐? 너희들은 그것을 무언가에 비교할 수 있느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 너희 모두에게는, “하늘에도 그렇게 많은 별이 있지 않고, 물도 그렇게 많지 않다네...”라는 노래가 있다. 너희는 무한한 사랑, 무한한 애정을 가졌다.

밥다다 역시 사랑스러운 너희 자녀들을 만나려고 여기에 왔다. 너희 자녀들 모두 사랑으로 기억을 하고, 밥다다는 너희 자녀들에 대한 사랑으로 왔다. 사랑의 선이 지금 각자의 얼굴에서 빛나고 있듯이, 마찬가지로 방식으로 너희가 지금 무엇을 더할 필요가 있겠느냐? 너희들은 사랑을 가졌고, 그것은 확실하다. 밥다다 역시 너희가 사랑을 가졌다는 것에 대해서 너희 각자에게 합격증을 주고 있다. 이제 너희들은 무엇을 해야겠느냐? 너희는 이미 이해했다. 너희들은 이제 그냥 그것에, 즉 “한결같이 사랑하며 지낸다”라는 데 밑줄을 긋기만 하면 된다. 그저 가끔씩만이 아니라, 한결같이 사랑하며 지내는 것이다. 사랑은 끊어지지 않지만, 그 퍼센티지에는 차이가 있다. 그렇다면 그 다름(안타르)을 끝낼 만트라가 무엇이냐? 항시 위대하고도 한결같은 기부자가 되어라. 세계 봉사자처럼 변함없이 공여자의 자녀들이 되어라. 너희들이 공여자 마스터가 아닌 때가 없게 해야 한다. 이러한 것은 세계 유익을 위한 아버지의 과업에 너희들 역시 조력자가 되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마음으로 힘을 기부하고 협조하든, 말을 통해서 이 지식을 기부하고 협조하든, 행동으로 미덕들을 기부하거나 사랑하는 너희의 접촉으로 행복을 기부하든, 너희는 참으로 많은 무한한 보물들의 주인이며 세계 최고의 부자들이다. 너희들은 끝이 없고 변함없는 보물들을 가졌다. 너희들이 더 많이 줄수록 그것들은 더 늘어난다. 그것들은 줄어들지 않고 늘어날 텐데, 왜냐하면 너희의 영적인 형제자매들 중 대다수가 지금 이 보물들을 갈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너희의 형제자매들에게 너희는 온정을 느낀다, 그렇지 않느냐? 목마른 영혼들의 갈증을 너희가 해소시켜 준다, 그렇지 않겠느냐? “오, 우리의 신과 여신들이여, 우리에게

힘을 주소서. 우리에게 참된 사랑을 주소서!”라는 소리가 너희의 귀에 도달하지 않느냐? 너희의 신봉자들과 슬픔을 겪고 있는 영혼들, 이 양쪽 모두 “자비를 가지소서, 온정을 베푸소서, 오 자비와 온정의 신들이여!”라고 부르짖고 있다. 너희들은 때의 부름을 들을 수 있다, 그렇지 않느냐? 그들에게 줄 때가 바로 지금이다. 다른 어느 때 너희가 그들에게 줄 것이냐? 너희들은 참으로 끝이 없고, 변함없는 보물들을 축적했는데, 그러면 너희가 그것들을 언제 줄 것이냐?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할 것이냐? 그때는 너희가 단 한 방울, 또는 한 줌밖에 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이 지금까지 축적해둔 보물들은 언제 사용할 것이냐? “나는 매 순간 이런저런 보물을 가치 있게 쓰고 있는가?”라고 체크하여라. 이것에는 2중의 유익이 있다. 너희가 보물들을 가치 있는 방식으로 사용함으로써 영혼들은 유익을 얻을 것이고, 그것과 더불어 너희들이 대 기부자이기 때문에 쉽게 장애의 파괴자가 될 것이며, 문제의 화신이 아닌 해결책의 화신이 될 것이다. 유익이 2중이다. “오늘은 이런 장애가 왔고, 어제는 그런 장애가 왔으며, 오늘은 이런 일이 일어났고, 어제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 너희들은 영원히 장애들과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이다. 너희들은 문제들에 시간을 들이고 그것들로 인해 애쓰는 데서 구제될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가 때로는 불행해지고, 때로는 열의를 가지기 때문이다. 밥다다는 너희 자녀들이 애쓰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좋지 않다. 너희 자녀들이 수고롭게 애쓰는 것을 볼 때, 밥다다는 자녀들이 애쓰는 것을 차마 볼 수가 없다. 그러니 수고하는 것에서 자유로워져라. 너희들이 노력은 해야 하지만 어떤 종류의 노력이나? 심지어 지금도 너희들은 사소한 문제들에 대해서 여전히 노력가들이냐? 이제는 끊임없이 대 기부자, 변함없이 협조하는 이가 되려고 노력하여라. 브라민들과 목마르며 슬픔을 겪고 있는 영혼들에게 협조해주어라. 대 기부자가 되어라. 지금 이 노력이 필요하다. 너희들은 이것이 마음에 들 것이다, 그렇지 않느냐? 그것이 마음에 드느냐? 뒤에 앉은 이들아, 너희는 이것이 좋느냐? 그러면 너희들이 이제 조금 변화를 가져와야 하지 않겠느냐? 너희는 스스로를 위해 노력하는 데 많은 시간을 들였다. 판다바들아, 너희는 이것이 맘에 드느냐? 그러면 내일부터 너희는 무엇을 할 것이냐? 내일부터 시작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부터 할 것이냐? “지금부터 나의 시간과 생각은 세계를 위한 것이다, 세계 봉사를 위한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져라. 그렇게 함으로써, 그것이 너희 스스로를 위해 자동적으로 될 것이다; 이것은 방치되지 않고 늘어날 것이다. 왜 그렇겠느냐? 너희들이 다른 이들의 소망을 이뤄줄 때, 너희가 그들에게 슬픔을 끼치지 않고 행복을 줄 때, 나약한 영혼들에게 힘과 미덕들을 줄 때, 그들은 참으로 많은 축복을 줄 것이며, 모든 이들에게 축복을 받는 것이 진진하는 가장 쉬운 길이다. 설령 너희가 강연을 하지 않거나 프로그램을 많이 할 수 없어도 상관없다. 만일 너희들이 그것을 잘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더 많이 해라. 그러나 너희들이 비록 그것을 할 수 없다 해도 상관없다. 너희들의 보물들을 가치 있게 사용하여라. 너희들은 마음으로 계속해서 힘의 보물을 주라는 말을 들었다. 말로 이 지식의 보물을, 행동으로 미덕의 보물을, 너희의 지각으로는 시간의 보물을, 너희의 관계와 접촉에서는 행복의 보물을 가치 있는 방식으로 사용하여라. 그것들을 가치 있게 사용함으로써, 너희는 쉽게 성공의 화신이 될 것이다. 너희들은 계속 날아다니며 지낼 텐데, 왜냐하면 축복은 계단이 아닌 승강기처럼 작용하기 때문이다. 문제가 생기면, 너희는 그것을 끝낸다. 그것에 때로는 2일이 걸리고, 어떤 때는 두 시간이 걸린다. 이것은 계단을 오르는 것과는 다르다. 너희의 축복을 가치 있게 사용하고 성공의 화신이 되어라, 그러면 어디든 너희가 원하는 데까지 1초 만에 이 승강기로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서틀 리전이든, 지고의 거주지든, 너희의 왕국이든 1초 만에 너희는 거기에 도달할 수 있다. 런던에서 너희들은 1분 짜리 프로그램을 했다. 밥다다는 “1초”라고 한다. 1초 만에 너희들은 축복의 승강기를 타고 어디든지 도달할 수 있다. 그저 의식의 스위치를 누르기만 하여라, 그것이 전부다. 수고로움에서 자유로워져라.

오늘은 2중의 외국인들을 위한 날이니 제일 먼저 밥다다가 2중의 외국인들을 어떤 형태로 보기를 원하겠느냐? 애씀으로부터 자유로우며, 성공의 화신이며 축복 받을 가치 있는 형태이다. 너희들은 이렇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느냐? 2중의 외국인들은 아버지에게 아주 좋은 사랑을

가졌다. 너희에게는 힘이 필요하지만, 너희는 아주 좋은 사랑을 가졌다. 너희들은 기적을 행한다, 그렇지 않았느냐? 보아라, 90개국에서 온 각기 다른 제도와 관습을 가진 여러 나라 출신인 5대륙 모두가 한 그루의 백단향 나무가 되었다. 너희 모두가 하나의 나무의 일부가 되었다. 지금은 단지 브라민 문화 하나뿐이다. “영국문화” 또는 “우리의 문화는 영국 문화다”라는 것이 더 이상 남아 있느냐? 없다, 그렇지 않느냐? 너희들은 브라민들이겠지? 너희들의 문화는 지금 브라민 문화라고 믿는 이들아, 손을 들어라! 단지 브라민 문화뿐, 그 외에는 없다. 너희들은 모두 하나다, 그렇지 않느냐? 너희들 모두가 한 나무의 일부가 되었기 때문에 밥다다는 너희를 축하해주고 있다. 그것은 아주 좋게 느껴진다. 너희들 중 미국이나 유럽에서 온 누구든, “당신은 누구십니까?”라는 질문을 받으면, 너희는 뭐라고 대답하겠느냐? “브라민입니다”라고 한다. 아니면, 너희들은 “저는 영국에서 왔는데요, 또는 나는 아프리카 출신, 또는 미국인입니다”라고 하겠느냐? 아니다. 모두가 하나로, 브라민들이다. 너희들 모두가 하나의 지시로 결합되어 있다. 너희 모두 브라민이라는 똑같은 형태이며 슈리마트라는 하나의 지시를 가졌다. 너희들은 이것을 즐기고 있다, 그렇지 않느냐? 그것을 즐기느냐? 아니면 그것이 어려우냐? 어렵지는 않겠지? 너희들은 고개를 끄덕이고 있다. 그것은 좋다.

밥다다는 봉사에서 어떤 새로움을 원하느냐? 너희들이 어떤 봉사를 하고 있든, 너희는 아주 대단하게 잘하고 있으니 그것을 축하한다. 그러나 미래에는 너희가 무엇을 더 보태야 되겠느냐? 너희 모두는 뭔가 새로움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밥다다는 너희가 지금까지 무슨 프로그램들을 했든, 얼마만큼 시간을 내주었든, 사랑으로 그 일을 한 것을 보아왔다. 너희들은 사랑으로 노력을 했고, 설령 너희가 돈을 내줬다 해도 그것이 수백만 배로 늘어났으며, 신의 은행에 있는 너희의 계좌에 저축되었다. 그래서 아무것도 내주지는 않으면서도, 너희는 저축을 했다. 결과로 너희 모두 메시지를 전해주고 소개하는 과업을, 그것을 어디서 행했든 너희는 아주 잘 수행한 것이 보였다. 지금은 그 일이 텔리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런던에서는 이미 시행되었으며, 밥다다는 2종의 외국인들이 한 “시대의 요청”과 “마음의 평화” 프로그램들 역시 무척 마음에 든다. 너희가 할 수 있는 다른 어떤 일이든 그걸 계속해라, 왜냐하면 메시지를 받을 때 그들은 사랑하게 되며 협조적이 되고 심지어 그중 일부는 관계를 맺게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너희는 그것에 뭘 더 보태야 되겠느냐? 너희가 큰 프로그램을 가질 때마다, 사람들은 어쨌든 메시지를 받지만, 그러나 그들이 경험도 하고 돌아가게 해야 한다. 경험은 그들이 아주 빨리 전진할 수 있게 해준다. 예를 들어 “시대의 요청(콜 오브 타임)”이나 “마음의 평화(피스 오브 마인드)” 프로그램에서 그들은 더 큰 경험을 한다. 그러나 더 큰 프로그램에서 그들이 좋은 메시지를 받지만, 누가 오든, 너희는 계속 추적해서 이후의 행사에서 그들이 뭔가 경험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하는데, 왜냐하면 경험은 결코 잊혀지지 않고, 경험은 그들이 심지어는 본인의 의식적인 바람에 반대하면서까지 더 끌리게 만드는 그런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일 먼저 밥다다가 묻는다: 너희 브라민들 모두가 이 지식의 모든 요점에 대해 경험했느냐? 모든 힘을 경험했느냐? 모든 미덕을 경험했느냐? 너희들은 영혼의식의 단계를 경험했느냐? 신의 사랑을 경험했느냐? 너희들은 지식을 이해하는 것에서 합격했고, 지식으로 충만해졌으며, 심지어 밥다다도 이것은 좋다고 말한다. 영혼은 무엇이나? 신은 무엇이나? 드라마가 무엇이나? 너희들은 이 지식을 이해했지만, 영혼의 힘과 신의 힘을 너희가 원할 때마다 어떤 상황 속에서든 원하는 만큼 오래 경험할 수 있느냐?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언제든 원할 때 원하는 만큼 길게 경험할 수 있느냐? 아니면 때로는 뭔가 한 가지가 되고, 다른 때는 다른 뭔가가 되느냐? 너희들은 “나는 영혼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는 거둬서 육체의식이 된다. 그렇다면 그 경험이 유용했느냐? 경험의 화신이 된다는 것은 모든 과목에서 경험의 화신이 된다는 뜻, 모든 힘에 대한 경험의 화신이 된다는 뜻이다. 그러니 너희 내면에서 경험들을 더 늘려라. 너희는 그 힘들을 가졌다. 너희에게 그 경험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저 때때로일 뿐이다. 것처럼 밥다다는 그것이 때때로 뿐이기를 원하지 않는다. 뭔가(something)가 일어나면, 그건 때때로(sometimes)가

된다. 너희들은 종종 너희의 목표가 무엇이라는 질문을 받는다. 그러면 너희는 아버지와 똑같아지기를 원한다고 말한다. 너희들 모두 똑같은 대답을 한다. 그래서 아버지와 대등해지기 위해서, 아버지는 결코 때때로(sometimes)나 뭔가(something)였던 적이 없었다. 아버지 브라마는 항상 라즈육트이며 요그육트했고, 때때로가 아니라 항상 모든 힘으로 가득했다. 너희가 가진 경험은 영원히 지속되며, 그것은 잠시 동안만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러니 너희들 스스로 모든 상황 속에서 경험의 화신이 되어라. 모든 과목에 경험을 쌓아라. 이 지식의 화신으로서 경험을 쌓고, 요그육트해지는 경험을 하고, 다르나의 화신이 되는 경험을 하여라. 모든 봉사를 하면서, 즉 생각, 말, 행동, 관계, 접촉으로 경험을 쌓아라. 오직 그런 다음에야 너희가 우등으로 합격했다고 불릴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은 무엇이 되길 원하느냐? 합격하기를 원하느냐, 우등으로 합격하기를 원하느냐? 합격할 이들은 더 나중에도 오겠지만, 너희들은 "너무 늦었다"라는 게시판이 올려지기 전에 왔다. 새로운 이들이 지금 왔지만, "너무 늦었다"라는 게시판은 아직 내걸리지 않았다. 늦었다"라는 게시판은 올려졌지만, "너무 늦었다"라는 게시판은 아직 올려지지 않았다. 새로운 이들인 너희가 왔어도, 지금 집중적으로 노력한다면, 그냥 노력이 아니라 집중적인 노력이라면, 너희는 앞서갈 수 있는데, 왜냐하면 아직은 등수가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직 아버지와 어머니, 두 분의 등수만 발표되었다. 어느 형제나 자매든 세 번째 등수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너희들은 다디들에 대한 사랑이 많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아버지 역시 다디들을 아주 많이 사랑하지만, 등수들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너희는 아주 오랫동안 잃었다가 지금 찾은 사랑받는 행운아 자녀들이다. 너희들이 원하는 만큼 많이 날아라, 왜냐하면 어린 아이들이 걸을 때는 아버지가 손가락을 잡아주고 가외의 사랑을 주지만, 더 나이든 자식들의 손가락은 잡아주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혼자 힘으로, 자기 두 발로 걷는다. 그래서 심지어는 새로운 이들도 지금 (시간을) 만회할 수 있다. 너희들은 황금 찬스를 가졌다. 그러나 "너무 늦었다"라는 게시판이 곧 내걸릴 것이다. 그러므로 그 전에 이것을 하여라. 여기에 처음 온 이들은, 손을 들어라! 앓차. 축하한다! 너희들은 너희의 집 마두반에 처음으로 도착했고, 그래서 밥다다는 이 나라와 외국의 전체 가족을 대신해서 수백만 배로 축하해주고 있다. 앓차.

너희들은 1초 만에 밥다다가 지시한 단계에 스스로를 안정시킬 수 있느냐? 아니면 그것을 위해 노력하느라 시간을 다 써버리느냐? 지금 너희들에겐 단 1초의 연습이 필요한데, 왜냐하면 너희가 "우등 합격"이라는 증서를 받을, 앞으로 올 마지막 순간들을 위해선 지금 이때 연습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원하는 때가 언제든 너희가 원하는 데가 어디든, 너희가 원하는 단계에 1초 만에 스스로를 안정시켜라. 이렇게 항상 준비되어 있어라! 너희는 준비가 되었느냐?

자, 지금 1초 만에 합류시대의 가장 상서로운 고귀한 브라민 영혼이 되어라. 너희 자신을 이 단계에 안정시켜라. 지금 나는 천사이며 더블라이트하다. “나는 세계 시혜자이며, 내 마음으로 봉사하면서 힘의 광선을 주고 있다”라는 것을 경험하여라. 너희는 하루 내내 1초 만에 이 형태에 스스로를 안정시킬 수 있느냐? 계속해서 그런 경험을 하여라, 왜냐하면 어떤 일이든 갑자기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너희에게 시간은 많지 않을 것이다. 격변 가운데서도 1초 만에 흔들림 없이 될 수 있으려면, 시시때때로 너희 스스로 시간을 내어서 이 연습을 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너희는 마음을 쉽게 다스릴 수 있을 것이다. 너희의 통제력과 통치력은 계속 늘어날 것이다. 앓차.

모든 곳의 자녀들에게서 편지가 많이 왔다. 너희들 중 많은 수가 본인의 경험들을 써서 보냈다. 그 보답으로 밥다다는 너희 자녀들에게 마음에서 우러난 많은 축복과 마음속으로 수백만 배의 사랑과 기억을 보내주고 있다. 밥다다는 모든 곳의 자녀들이 들으면서, 또한 보고도 있고, 심지어 보고 있지 않은 이들까지도 기억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 모든 이들의 지각이 지금 이때에는 마두반에 있다. 그러니 모든 곳의 자녀들 모두에게 개인별로 각 이름 별로 사랑과 기억을 보내니,

각자 받아다오.

열성과 열의의 날개로 끊임없이 고귀한 단계에서 날아다니고 있는 고귀한 영혼인 너희들 모두에게, 변함없이 사랑 속에 합쳐져 있는 자녀들에게, 애씀으로부터 한결같이 자유롭고, 장애 없이 요그육트하고 라즈육트한 자녀들에게, 모든 상황에서 1초 만에 통과하는 이들에게, 매 순간 모든 힘의 화신으로 머무는 전능한 권위자 마스터 자녀인 너희들에게, 밥다다의 사랑과 기억과 나마스테.

축복: 황금시대에 걸맞은 너희의 성질로, 고귀한 노력가로서 황금시대에 적합한 봉사를 하여라.

오래된 산스카라나 질투하는 성질, 고집부리는 성질, 자기의 옳음을 증명하려고 애쓰는 등의 불순물이 없는 자녀들은 황금시대에 걸맞은 성질을 가진 이들이다. 그렇게 황금시대의 성질을 가지고 변함없이 “하 지! (네, 맞습니다)”라고 하는 산스카라를 가진 이들, 그런 고귀한 노력가인 자녀들은 때와 봉사에 스스로를 맞추며 순금이 된다. 예고와 모욕을 받는다는 느낌의 불순물이 너희의 봉사에 섞여 있지 않을 때, 너희는 황금시대에 걸맞은 봉사를 하는 이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슬로건: “왜?”와 “무엇이?”라는 질문들을 끝내고, 한결같이 행복한 마음으로 머물러라.

*** 옴 산티 **OMSHANTI** ***

아비약트신호: 쉬운요기가되기위해서는신의사랑을경험하여라.

대등하며 사랑 속에 합쳐져 있는 단계를 가진 영혼들은 한결같은 요기들이다. 그들은 요가를 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이들이 아니라, 사랑 속에 잠겨 있는 이들이다. 분리되어 있지 않으니, 그들이 왜 기억을 해야 하겠느냐? 자연스러운 기억이 있다. 동반자일 때는 자연스러운 기억이 있다. 대등한 영혼들의 단계는 함께 머물고 합쳐져 있는 그런 단계다.